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조상 덕 의지 말고  
나와 남 위한 기도를  
8번

#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2월 28일) · 주간

제1040호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 전통산사 세계 유산 등재 가치 논한다

(유네스코)

추진위 4월 24일 국제 세미나... 등재 추진 사업 본격화

등재 해외 전문가 참여  
종교 유산 가치 조명해  
향후 국내외 세미나 예정  
“등재 당위성 높일 것”

한국 전통산사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추진위)는 4월 24일 공주 마곡사에서 ‘종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천등산 봉선사, 봉황산 부석사, 영축산 통도사 등 7개 사

찰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조계종은 지난해 8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 있는 국제학술회의다. 구오짚 이코모스중국위원회 부위원장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종교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개관’ 주제 발제에 이어 부리타 루돌프 브란덴부르크 기술대 교수가 ‘세계유산적 가치의 측면에서 어떻게 종교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등 각 종교별 유산의 가치와 현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한국불교와 관련해서는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한국 전통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주제로 발제한다. 한국의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과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열리는 만큼 이번 학술회의에는 세계유산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며, 학술회의 이후에는 등재 대상 사찰인 법주사와 마곡사 일원에 대한 답사가 진행된다. 이번 학술회의에 대해 추진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799개이며 그중 34개의 유산이 불교문화재”라면서 “대부분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에 집중 분포돼 있다. 아시아

불교 유적의 보편적 가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의 등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위는 이번 국제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등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10월 경에는 ‘불교유산의 세계 문화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세계 불교유산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학술회의를 한차례 더 개최한다. 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7개 사찰의 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기존 정부·지자체 조사들이 단순한 실측 현황 파악에 주안점을 뒀다면 추진위의 조사는 유·무형 자산들의 관리 현황을 비롯해 주변 식생·환경·생태까지 포괄한 조사로 이뤄진다. 김미경 추진위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전통산사가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산사가 가지는 가치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부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현재 7개 사찰의 유·무형 자산을 파악하는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고서에는 7개 사찰의 보존가치와 관리현황, 주변 환경 및 사찰 의례 등 유무형의 문화 가치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자료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11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산재’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불조지심체요절 하관’과 ‘고려대장경판 및 계경판’은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돼 있다. 추진위는 오는 2017년까지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외 학술회의를 열고 유네스코의 현지 실사를 거친 후 2018년 세계 유산 등재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 “감사의 합장을 생활화합시다”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세요

본지·수효사 ‘감사편지’ 공모... 4월 25일까지 접수

부처님오신날 봉축 일한  
대상 상금 100만원 수여

방공 회향, 갑질 논란 등 인성 부재의 시대. 이는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주위의 모든 인연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하는 공모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현대불교신문사(대표 혜월)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이사장 무구)은 공동으로 ‘감사 편지’ 공모를 진행한다. 후원단체로는 불교여성개발원·동산문화·공림공양회·여여원이 참여한다. 불기2559년(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감사 편지’ 공모는 부모, 스승, 이웃, 친지 등 주위 인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를 통해 ‘감사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감사편지 공모는 오는 4월

25일까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 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작에게도 주최·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된다. 이에 대해 감사공모 공동추진단체인 현대불교신문사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은 “한통의 감사 편지는 자기 치유와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다”면서 “‘감사의 생활화’를 위한 이번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접수 및 문의  
우 편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E-MAIL | linus@hyunbul.com  
전화 | (02)2004-8200



연등회 알리기, 우리에게 맡기세요  
종교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세계 40개국에서 온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와 참이엔씨(대표 하영태)는 4월 8일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15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식을 가졌다. 150명의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2개월간 글로벌 홍보와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웹포스터를 시작으로 역사, 문화, 교육 등을 이주하게 되어 전세계인들에게 연등회를 알리는 홍보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맡게된다. (관련 기사 6면) 이나은 기자

##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고조

조계종 환경위, 본사 사회국장단 성명서 발표

조계종을 중심으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4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불산 케이블카 건립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날 영축총림 통도사는 울산시청에서 울주군청까지 본·말사 사부대중이 함께 신불산 케이블카 건립 반대를 외치며 도보 행진을 전개하기도 했다. 환경위원회는 ‘울산시와 울주군

은 신불산 케이블카사업을 당장 중지하고 사과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신불산은 자연공원(군립공원)과 낙동정맥 지역으로 영남알프스일원의 중요한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며 “보호지역을 관리해야 할 해당 지자체에서 보호지역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공원과 낙동정맥을

파괴하는 사업 중단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지타당성과 재정 평가 등 모든 자료 공개 △담양공무원들의 사후책임과 배상을 명문화하는 정책실명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조계종 교구본사 사회국장단은 4월 9일 개최된 교구본사 사회국장회의에서 ‘신불산케이블카 설치반대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 사회국장단은 성명서에서 “최근 울산시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 아

래 생태가 우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불산 자연공원에 환경보존 및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케이블카설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가 민족정기 말살을 위해 신불산에 박아 두었던 철심을 뽑고 기념했던 울산시에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수십 톤의 철제건물과 지주대 등을 세워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성민 기자

## 조계종 신도품계 최고위 배출된다

포교원, 선혜품계자 357명 선정... 18일 품서식

교육화·전문화된 신도를 양성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에서 2010년부터 추진한 신도품계제도의 최고 단계인 선혜품계 품서식이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및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포교원은 “2010년 종단신도조직화 기치 아래 신도품계제도를 시행한 결과 발심품계자(종단신도등록자) 25만명, 행도품계자(기본교육 이수자)4만명, 부동품계자(전문교육 이수자)3만명 이상 이 배출돼 신도품계제도의 기본근간을 형성했다”며 “하지만 신도지도자급 품계인 선혜 품계는 여러 가지 여건 미비로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다 지난 해 11월 신도법 개정으로 신도지도자교육 및 선혜품계 품서를 통해 시행함으로써 종단 신도 교육과 조직화 과정을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시행에 따라 선혜품계를 품서받는 대상은 총 357명이다.

품수자는 신도법 제20조 및 신도품계시행령 제9조의 특례조항에 의거, 종단발전에 공로가 크거나 각급교육 및 신행경력을 갈음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불자들이 선정됐다. 포교원은 “중앙차원에서 후보자를 선별했으며, 교구본사 전체가 이번 품서 시행에 공감한 주지스님들이 추천한 후보자를 심의해 지난 2일 포교원회의 의결로 품수대상을 확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하반기에는 신도지도자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시범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혜품계자는 금색의 신도회장을 받게 되며 종단 신도 지도인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편 포교원은 선혜품계자를 대상으로 4월 18일 오후 2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지도자교육 특례과정을 실시하고 4시부터 품서식을 개최한다. 이나은 기자

## 乙未年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천년의 향기가 숨쉬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시고 금강계단을 쌓아 戒를 설하신 戒律의 근본도량입니다. 올미년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세계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발원합니다.

등참금 5만원 (새마을금고 6269-09-005031-0 예금주 : 통도사)  
차량안내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 출구 앞 - 오전 8시 ~ 9시  
접수 및 문의 통도사 종무소 055) 382-7182 화엄전 055) 381-1288  
팩스 055) 372-7010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토명 합장

입재 2015년 4월 23일(음 3.5) 목요일

회향 2015년 4월 25일(음 3.7) 토요일

장소 통도사 금강계단

